

생활정보

병원 특진제 없앤다

생활 병원 '특진제'가 시행 10년만에 폐지되고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비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 선택진료제가 새로 도입된다.

쓰레기봉투 두꺼워진다

생활 서울 시내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두꺼워진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봉투가 너무 얇아 잘 찢어진다며 시민 불만이 커 두께를 현재의 0.02mm에서 0.025mm로 보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차 정기승차권도 좌석지정

교통 철도청은 11일부터 통학생·통근자 등 열차 정기승차권 이용 승객도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실시했다.

결혼자금 대출상품 잇달아

금융 결혼자금으로 고민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여신전문기관들의 대출상품이 나왔다. 삼성캐피탈은 25세 이상 35세 이하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500만원까지 무보증 대출한다.

철거민용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 서울시는 철거민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아파트 특별공급 정보시스템'을 개발, 이달 하순에 각 구청에 설치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요구르트 영양효과 있다

건강 '요구르트를 마시면 방광 입과 결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 8일 개최된 '유산균과 건강' 국제학술회의에서 요구르트 등 유산균제품에 함유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 시민사회 이끌자”

'99서울 NGO세계대회 1천115개 단체 7천6백명 참가 교계 10여단체 동참 21세기 불교NGO 방향 등 모색

국내외의 1천115개 단체 7천600명이 참가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던 '99서울 NGO 세계대회'는 20세기 마지막 대회이자 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 불교계 NGO들도 이번 서울대회에 적극 참여, 21세기 운동방향을 모색했다. 사진은 석정원차회장이 현공대례법을 시연하는 장면.

이번 대회는 ▲20세기의 회고 ▲21세기의 전망 ▲인류문명의 평가 ▲NGO의 활성화 ▲미래의 진로 등 5차례의 전체회의와 주제별 종합회의 및 분과토의로 진행됐다.

NGO의 힘은 무엇보다 그 전문성과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잘 구축된 현지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속한 정보 수집 능력과 민첩한 행동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NGO가 실제로 시민들의 주목

을 받기 시작한 것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재야세력이 활동하면서부터다. 최근에는 경찰서, 참여연대 등이 종합적 성격의 NGO로 성장하고 있다.

불교계도 21세기 NGO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번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좋은벗들과 불교환경교육원, 한국JTS 등이 아시아의 난민실태 및 소비주의의 극복, 북한의 식량위기를 주제로 각각 분과토론을 주관했으며, 조계종 국제포교사회와 불교전통문화원 석정원차회, 좋은벗

들, 한국JTS 등이 각각 부스를 마련해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부선, 전불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재가연대 등 10여개 단체가 참가해 21세기 불교 NGO의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NGO 자신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NGO의 성공여부는 민주적 참여와 전문성의 확립, 재정적 취약성 극복,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헌신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사상은 NGO의 이론적 토대”

유정길(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이번 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불교가 21세기 사상을 주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NGO들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목표는 대부분 불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편이지만 국내 NGO들은 물론 국제적인 연대의 틀을 모색한다면 불교도 이론과 조목을 겸비한 사회운동의 일원으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작년 18초당 1건 범죄 발생

범죄발생 평균시간을 나타내는 '범죄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광원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 백서를 분석한 것에 따른 것으로, 96년 22초당 1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비해 지난해에는 18초당 1건의 범죄가 발생해 2년 사이에 범죄시계가 4초나 빨라졌다.

지난해의 경우 살인 4건 강도 4건 폭력 등 5대 범죄의 부분별 '범죄시계'를 보면 △살인 9시간55분 △강도 1시간35분 △강간 1시간28분 △절도 5분49초 △폭력

은 2분19초마다 1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96년 '범죄시계'에 비해 △살인 3시간49초 △강도 48분 △강간 6분 △절도 1분41초 △폭력 23초씩 각각 빨라졌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청은 올해 8월말까지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 평균시간이 19.7초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7초 늦어진 것을 비롯해 강도(27분)와 절도(1분11초)는 늦어지고 살인(1분) 강간(4분) 폭력(20초)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허영심 부추기는 일요일 '가짜마켓'

서울 등 대도시에 청소년 대상 대형 쇼핑센터에서 일요일마다 '가짜마켓'이 형성돼 국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흥내낸 가짜 핸드백 신발 옷 등이 날개돋힌 듯이 팔리고 있다.

주요고객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젊은층. 일요일에는 '진짜같은' 가짜 제품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년들이 줄기 매장을 찾는다.

소비자단체들은 "진짜 같은 가짜를 싸게 사놓고 실속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은 위험천만"이라며 "가짜마켓의 번성은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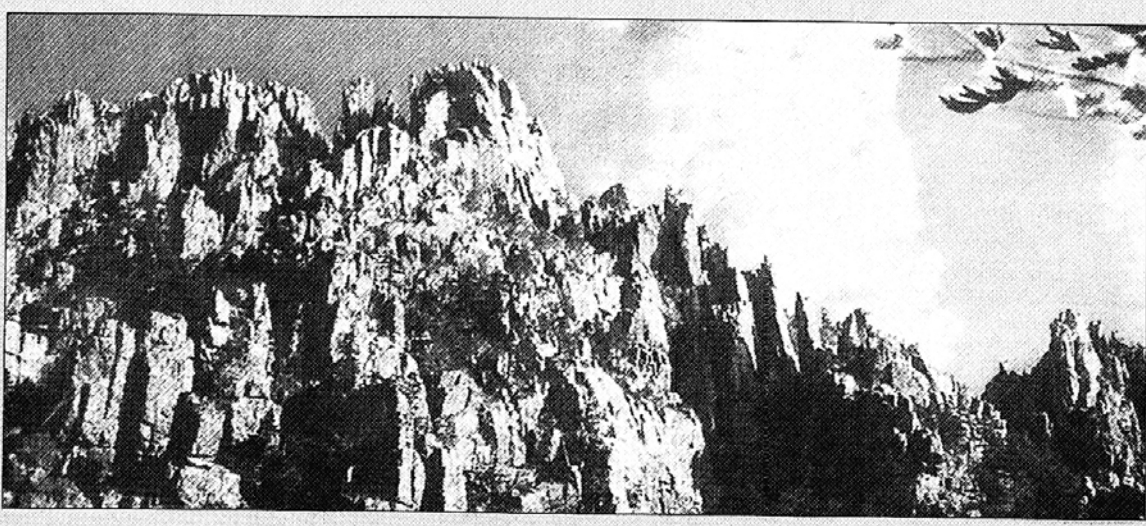
김재성 (대한매일 편집국장)

“힘자랑·재판놀음 머리감지 않아도 할수 있을텐데...”

10월 12일 오전 7시 2분(한국시간) 세계인구 60억 돌파를 의미하는 60억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이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20세기의 업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갈 새 가족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의 놀음같은 그 짓 하기 위함이었던가 그것을 묻고 싶다. 힘 자랑 재판놀음 같은 것은 머리감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수 있을텐데.. 그런 뺨장 그런 지모로 세속에서 싸우면 더 성공할수 있을텐데 왜 하릴이면 먹을 수 있고 그 짓을 할까. 불자들은 그 점을 못내 궁금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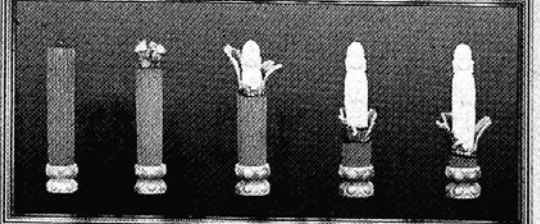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 1999년 12월 3일차, 현대불교신문게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범음, 범패집 각 1집)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계걸림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타십니다